

부 고

마리아 타데아 MARIA TADEA 수녀 ND 5306

플로렌티나 스리 세넵 프리하틴 Florentina Sri Seneng Prihatin



인도네시아 페칼롱간 착한 의견의 어머니 관구

출 생:	1939 년 8 월 17 일	인도네시아 수라카르타
서 원:	1961 년 1 월 4 일	인도네시아 페칼롱간
사 망:	2018 년 4 월 10 일	인도네시아 페칼롱간
장 례:	2018 년 4 월 12 일	페칼롱간 수녀원 묘지

”...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” (2 테살 3,10)

스리 세넵 프리하틴은 수라카르타에서 슬라멧 위도도세워코와 그의 아내 무지라의 아이로 태어났다. 세 자녀 중 막내였다. 사회적 정치적 상황 때문에 가족은 암바라와로 이주하여 좋은 그리스도교 가정으로서 생활했으며 스리 세넵 프리하틴은 그 안에서 성장하여 1953 년 12 월에 플로렌티나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았다. 이듬해인 1954 년 9 월 3 일에 견진성사를 받았다.

1957 년, 하느님의 목소리가 플로렌티나의 마음을 깊이 움직여 저항할 수 없을 지경이 되자 페칼롱간에 있는 노트담 수녀회 책임자 수녀에게 자신을 청원자로 받아달라고 청했다. 플로렌티나는 1958 년 10 월 30 일에 착복을 하면서 마리아 타데아 수녀라는 수도명을 받았다. 1961 년 1 월 4 일에 첫 서원을 했으며 렘방의 성 테레시아 공동체에서 살림을 돌보는 소임으로 유기서원기를 시작했다. 수녀의 수도 양성은 수녀가 성숙한 수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종신선서를 위한 허가를 받았다. 수녀는 1967 년 1 월 3 일에 종신선서를 받았다. 2011 년 1 월 1 일에는 금경축을 맞이했다.

젊은 수녀로서 마리아 타데아 수녀는 청결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살폈다. 수녀는 이를 가정에서 배웠다. 그랬기에 특히 새로운 분원을 열 때면 언제나 집안 일을 돌보는 소임을 맡았다. 수녀는 정원을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주변을 정갈히 유지했다. 자신의 방식으로 공동체를 사랑했으며 공동체 기도와 회의에 어김없이 참석했다. 공동체 수녀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 말고도 병원이나 가정에 있는 가족들과 병자들, 임종자들과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방문하며 공동체 밖에서도 봉사했다. 테살로니카인들에게 보내는 성 바오로의 서간문 구절은 사랑하는 마리아 타데아 수녀의 삶을 요약하고 있다. 수녀는 주간 카리스마 기도회, 성녀 모니카 회, 가톨릭 여교우회 등 교회 활동에도 참여했다. 뿐만 아니라 지역 여성들의 모임에서도 활동적이었다.

잊지 못할 삶의 체험은 2003 년 수녀회 순례였다. 수녀회와 교회의 역사지를 방문하는 동안 수녀는 체험한 모든 것을 기록했다. 이러한 기회에 대해 수녀회에 너무나 감사하여 모든 일을 낱낱이 적어두고는 수녀들과 나누었다.

마리아 타데아 수녀의 건강은 2018 년 4 월 7 일부터 악화되었다. 수녀는 자신이 “고향으로 갈 것”을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입원을 해야 한다면, 생의 마지막 시기에 다른 이들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3 일간만 머물게 해 달라고 기도하곤 했는데 하느님께서는 그 청을 들어주셨다. 수녀는 생의 마지막 3 일동안 응급실에 있다가 병자 성사를 받고 2018 년 4 월 10 일에 생을 마감했다. 우리는 수녀의 현존을 그리워하지만 수녀가 우리 각자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리라고 믿는다. 주님과 함께 평화의 안식을 누리소서.